

색다른 관점 흥미끄는 성풍속의 사회사

도서출판 까치 펴냄 '풍속사 시리즈'

사소한 것에서부터 당시의 전반적인 시대상까지를 전할 뿐더러 읽는 재미 또한 각별한 것이 풍속사. 도서출판 까치가 연속기획물로 펴내고 있는 풍속사 시리즈는 특히 인류의 공통관심사라 할 성과 관련된 풍속사란 공통점을 특성으로 지니며, 판매부수도 만만치 않아 스테디셀러로서의 새로운 영역을 굳히고 있다.

딱히 시리즈명을 붙여 묶은 것은 아니지만 출판사의 기획에 의해 동서양의 풍속사를 두루 아우르고 있는데, 이 시리즈의 만행격인 「풍속의 역사」(전4권) 제2권이 먼저 출판된 것은 지난 86년. 한양대 리영희교수가 소개하고 일어판본을 구해줘 출판된 에두아르트 폭스의 「풍속의 역사」(이기웅, 박종만 옮김)는 “성행동은 그 시대의 발전상을 인식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관점에서 씌어진 책. 금서였던 탓에 원서를 구하기 힘들었던 이 책의 번역과 제작기간은 꼬박 4년이 걸렸고, 원본(3권)과 달리 모두 네권(1권: 풍속과 사회 2권: 르네상스 3권: 색의 시대 4권: 부르조아의 시대)의 번역본으로 출판됐다.

커리커치 연구가인 폭스는 이 방대한 저술을 통해 복장과 연애, 결혼, 사고 생활, 매춘 제도는 물론 종교와 사회제도 등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다수의 제도와 행위가 성의 힘에 크게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민중의 미술작품



과 노래와 시와 속담, 만담, 글을 통해 적나라하게 증명하고 있다.

「풍속의 역사」의 뒤를 이어 91년 출판된 「世界風俗史」(이윤기 옮김)는 저명한 문화사가인 파울 프리샤우어의 역저로, 고전 「풍속의 역사」가 르네상스에서 19세기말까지의 유럽을 분석대상으로 삼은 데 반해, 고대에서 20세기말까지의 유럽을 비롯한 인도, 중국, 일본, 이슬람 세계까지를 망라한 성풍속과 그 문화를 담은 책. 성과 관련된 세계각국의 흔적을 보여주는 3백여개의 도판을 실어 시각적 전달효과가 큰 이 책은, 「패러다이스에서 중

세까지」를 부제로 단 상권과 하권(‘르네상스에서 섹스혁명까지’)으로 나뉘어져 있다.

분석대상의 범위를 좁힌 성풍속사인 「매춘의 역사」(92년)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직업 가운데 하나인 매춘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 원시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춘과 매춘부의 역할과 삶이 어땠는가를 역사 사회학적으로 접근한 책. 빈 벌로와 보니 벌로가 집필한 이 책을 통해 독자는 쾌락적 성과 윤리적 성의 이중규범으로 빚어진 매춘의 시대별 지역별 특성과 그에 대한 저자들의 치밀한 분석을 접할 수 있다. 저자들의 논지 가운데 하나

는 “여성의 경제적 종속이 매춘의 주요원인은 틀림없지만, 여성노동자의 임금상승이 매춘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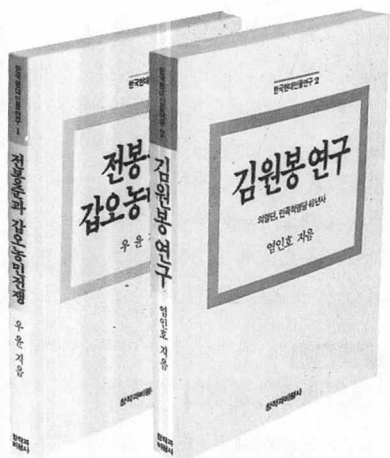
가장 최근 출판된 「中國性風俗史」(장원철 옮김)는 네덜란드 출신의 직업의교관이었던 R.H. 반 홀릭이 선사시대부터 명나라까지의 중국의 성풍속을 구명한 것. 동양학 학자로 중국문화와 미술 등 다방면의 연구서를 남긴 저자는, 시대별로 중국의 성문화를 파헤치는 한편, 인도와 중국의 성적 신비주의의 역사적 관계를 비교한 글 ‘인도와 중국의 성적 신비주의’를 부록으로 덧붙였다.

이상의 성풍속사만 다르지만 역시 풍속사인 인제대 이광주교수의 「유럽사회, 풍속산책」도 펴낸 이 출판사 대표 박종만씨는 “전문가보다는 일반인들을 겨냥한 풍속사시리즈는 방대한 역주와 까다로운 문장 등 번역작업부터가 힘들다”면서, “그러나 앞으로도 쿠진스키의 「독일민중생활사」나 李傲의 「중국문화와 에로스」 등 계속 이 분야의 책을 출간할 계획”이라고 전한다. 아울러 일본의 성풍속사도 펴낼 예정이라고 덧붙이는 박종만씨가 아쉬움을 갖는 것은 우리 필자에 의해 씌어진 풍속사를 낼 수 없는 데 있다.

— 최태원 기자

사료발굴 돋보이는 인물평전

창작과비평사 펴냄 '한국현대인물연구'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 새로운 조명이 필요한 인물을 선정, 기존의 평전들과 달리 일반인과 전문가를 독자로 삼는 ‘한국현대인물연구’ 시리즈가 창작과 비평사를 통해 출간되기 시작했다.

사학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젊은 연구자들이 필진으로 기용된 이 시리즈는, 참신한 시각으로 사료들을 발굴 분석하고 현지답사와 인터뷰 등을 거친 연구성과물을 모은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또한 해당인물과 관련된 많은 사진자료와 지도 등도 덧붙여 치밀한 연구과정을 보여준다.

첫번째권으로 출간된 「전봉준과 갑오농민전쟁」(우윤 지음)은 “우리 근대사의 분기점을 이루는 1874년에 일어난 농민전쟁에서 우뚝 선 한 인물”인 전봉준의 평전으로, 그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본격연구서. 저자는 농민전쟁의 발발원인에 대해 삼정문란이나 지배층의 착취, 그리고 양반 토호들의 횡포에만 초점을 맞춘 종래의 관점에서 벗어나 조선후기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이를 토대로 한 사회변동의 가속화를 유발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특히 최예양운동과 보은·원평·밀양 등지에서 열린 삼남집회의 성격규명을 통해 반의세투쟁으로서의 농민전쟁의 前史와 전봉준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다.

국민대 사학과 박사과정의 염인호씨가 쓴 제2권 「김원봉 연구」는 ‘의열단, 민족혁명당 40년사’를 부제로 하고 있는 책으로, 남북한 역사에서 도외시 당하고 있는 若山 김원봉의

고난에 찬 투쟁사와 인생 역정을 광범한 1, 2차 자료분석을 거친 일관된 틀에 담고 있다.

국내의 연구사상 최초로 김원봉의 전체상을 보여주는 이 책에서 저자는 김원봉이 주도했던 의열단과 민족혁명당·인민공화당 등의 ‘조직활동’에 주목하고 있으며, 중국의 국내 정세와의 관련까지도 파헤쳐 시가의 확장을 피한 점이 돋보인다. 역사에 가려진 ‘역사적 인물’을 다시 끌어내 그 행적을 밝힌 것이 이 책의 성과.

앞으로도 이 시리즈는 ‘진보당의 조봉암’ ‘일제시대 노동운동가 이재유’ ‘임꺽정의 작가 벽초 홍명희’ ‘건국준비위원회의 여운형’ 등의 인물을 대상으로 계속 출간될 예정이다.

— 최태원 기자